

[목회자 모임]

십자가로 가는 길 - (5)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13장~14장)

2020. 5. 8. 이현래

오늘은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4장까지이다.

13장에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셨다. 그것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부모가 마지막에 유언을 할 때 자식들에게 할 말이 있다면 뭐라고 하겠는가? ‘너희들 사이 좋게 잘 지내라.’는 말일 것이다. 어느 부모든지 임종할 때 자녀들 앞에서 하는 유일한 말이 있다면 ‘서로 사랑하고 잘 지내라.’는 그 말을 하지 않겠는가? 예수님도 똑 같다. 임종할 때가 온다는 것을 예감하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당부하신 것 같다. 사도 요한도 마지막에는 사랑하라는 말만 했다고 전해진다. 마지막 할 말은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이다.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사람이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사랑이 달라진다. 우리가 다 사랑하면 그게 끝이 아니겠는가? 문제는 서로 사랑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서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서로 사랑한다고 생각하기는 하는데 서로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랑이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될 수 없다.

제자들도 3년 반이나 같이 살았는데 서로 사랑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사랑의 성질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 말만 가지고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은 서로 사랑하라 했으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먼저 사람이 바뀌지고 난 후에 그 사람의 사랑이다.

개가 개를 사랑하는 것이 다르고, 고양이가 고양이를 사랑하는 것이 다르다. 개와 고양이를 키워 보니까 다른 점이 있다. 개는 자기가 먼저 먹고 새끼들을 준다. 자기가 배고플 때는 음식을 새끼들에게 안 준다. 그런데 고양이는 다르다. 새끼들이 다 먹고 난 후에 자기가 먹는다. 그만큼 고등동물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참 특이하다. 새끼들이 먹는 것을 그냥 보고 있다. 다 먹고 난 후에 자기가 먹는다. 그런데 개는 자기가 먹고 나야 새끼들이 먹는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사랑하기도 하고 저렇게 사랑하기도 하니 사랑이라는 말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할 수가 없다. 문제는 사람이 바뀌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14장에 가면 거처와 보혜사가 나왔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14:1~3)고 말씀하신다. 이것을 옛날 사람들은 천당이라고 생각했다. 예수님께서 천당을 준비하러 가셨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말이 아니다. 생명의 세계 안에서는 거처와 집이 하나다. 거처와 사람은 하나다. 그 사람이 있는 곳이 그 사람의 거처다. 그 사람 자신이 그 사람의 거처다. 객관적으로 집이 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은 생명 자체에 집이 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에 가는 길이 많다. 거처가 많으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거처를 마련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인도하겠다고 하셨다. 천당이라고 했으면 제자들이 좋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길을 모르겠습니다.’가 된다.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요14:6)라고 한다. 이 말을 이해하기가 난처했을 것이다. 그래서 또 묻는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요14:8)라고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너희와 3년 동안이나 함께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요14:8)고 했다.

그러면 결국 아버지 집이니, 아버지께 갔다 오느니 아버지 이랬던 모든 말들이 어디로 가 버리고 없고 나를 본 자는 다 본 것이 아니냐? 내가 있으면 다 된 게 아니냐? 이 말이 된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요14:8)고 했으니까 제자들이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멍했을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서까지도 다 해결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왜 예수를 믿느냐고 물어보라. 물으면 천국가려고 믿는다고 한다. 요즘은 천당이라는 말은 잘 안하고 천국가려고 믿는다고 한다. 목표가 있는 것이다. 간단한 목표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생명 안에서는 그 목표가 지금이고, 지금이 목표

다. 내일이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애매하고 힘이 든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요14:2)는 처소가 많다는 말이다. 그곳은 잠깐 머무르는 곳, 아니면 길게 머무르는 곳, 이런 뜻이다. 또 집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내가 처음에 대구 와서 C.C.C.에 있을 때인데 성경공부를 하다가 그런 구절이 나왔다. 그래서 누가 물었다. 콩이 먼저입니까, 깍지가 먼저입니까? ‘깍지가 있어서 콩이 생긴 겁니까, 아니면 콩이 있어서 깍지가 생긴 겁니까? 이런 말을 물었다. 그래서 내가 콩이 있어서 깍지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처음에 보면 깍지 속에 콩이 없다. 나는 콩이 있으면 그 깍지가 있지 깍지를 열어 보면 콩이 없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그 안에 콩이 생긴다고 대답했다. 얼른 보면 깍지가 있고 그 안에 콩이 생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콩이 있어서 깍지가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콩마다 깍지가 다르다. 흰 콩 깍지가 다르고, 강낭콩 깍지가 다르다. 그 이유는 콩이 먼저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도 그렇다. 자궁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씨가 먼저 가야 자궁이 작동하는 것이지 씨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 눈에 안 보이지만 깍지 속에 열매인 콩이 이미 있는 것이다. 내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계신다. 만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있다. 안 보이지만 먼저 있는 것이다. 먼저 있기 때문에 만물이 생겼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요14:2)고 하니까 길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했더니 **“내가 곧 길이요.”**(요14:6)라고 한다. 여기서 우리가 회랍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분석을 해버리면 콩도 아니고 깍지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안 된다. 이것은 분석할 수가 없는 것이다. 깍지가 콩이고 콩이 깍지다. 그런데 콩이 다 익고 나면 콩이 깍지와 분리가 되는 것이다. 나무에 열매가 맺히면 처음에는 나무와 열매가 하나다. 나무속에는 열매가 없고 안 보인다. 그런데 열매는 나무에 열린다. 열매가 다 익고 나면 그 열매는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이다. 그때 갈라지는 것이다.

알고 보면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 것도 없는 것이다. 내 생명의 근원이 없이는 나는 없다. 그 생명의 근원이 있어서 내가 있는 것이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먼저다. 보이는 것은 다음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먼저다.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서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이 생긴다. 하지만 본래부터 보이는 것이 그 안에 있었다.

집을 말씀한 다음에 보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였다. 거처를 먼저 말하고, 보혜사를 말한다.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palaketos) 곁에 있는 위로자, 혹은 보호자, 혹은 격려자, 이런 뜻이다. para란 말이 '곁에'라는 말이니까 합성어로 곁에 있는 자, 항상 곁에 있는 자다.

이제는 주님이 떠날 때가 되어서 제자들이 불안한 것이다. 어디로 간다는 말인지 불안하다. 그래서 한다는 말이 너희 곁에 내 대신 보낼 보혜사가 있는데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너희에게 보내겠다고 말씀하셨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요 14:16) 내가 없더라도 나와 같은 보혜사가 나와 같은 영이 너희 곁에 항상 있을 것이다. 너희를 항상 위로할 것이고, 너희를 격려할 것이고, 너희를 보호할 것이고, 변호할 것이고, 중보할 것이고, 내가 지금까지 했던 그것을 그대로 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제자들이 그것을 알겠는가? 그런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여기는 함께라는 개념인데 사실은 알고 보면 창조 때부터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사람을 떠난 적이 없다.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떠난 적이 없다. 알고 보면 항상 함께 있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있다면 아브라함이 혼자 있었는가? 아니다. 그를 부르신 이가 함께 있었으니까 100살이 되었을 때 다시 찾아왔다. 처음에 부르시고 끝나 버린 것이 아니고, 부르신 분이 항상 함께 있었다. 결국은 그것이 보혜사가 아닌가? 곁에서 말씀도 하셨고 또 아니라고도 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이 전부 자기 곁에 누가 있는 것이다.

보혜사는 항상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 아니다.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마찬가지다. 야곱도 베델에서 돌베개를 하고 자고 일어나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멀리서 찾았다고 말한다. 사닥다리를 보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다. 율법으로도 있고, 성전으로도 있고, 선지자들로도 있고, 이것이 알고 보면 다 보혜사다. 신약으로 말하면 백성 곁에 있는 사람들, 백성과 함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었다.

그렇지만 이 ‘함께’라는 것이 애매하다. 정확하지 못하다. 어떤 때는 정확한데, 어느 때는 모르겠다는 말이다. 아브라함도 와서 말씀할 때는 알겠는데, 떠나고 나면 모르겠고, 또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모르겠다는 말이다. 그래서 애매해진다.

보혜사에 대해서 전문가가 있다.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목사가 전문가다. 누구인지 아실 것이다. 그분이 전문가다. 그렇게 같이 있는 것은 어느 때는 같이 있지만 어느 때는 없다. 그래서 불안하다.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항상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항상 사람 속에 있을 수가 없다.

사람이 완전하게 구속되기 전에는 그 사람과 영원히 함께 있을 수가 없다. 앞으로 있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아무 문제도 없다. 항상 옆에 계시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그러면 뭘 하려고 기도를 하는가? 항상 옆에 계시는데 다 알아서 할 것이 아닌가? 잡히지 않으니까 기도해서 찾는 것이고 부르짖는 것이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으로서는 빈 통이다. 형상이다. 형상이니까 항상 내용이 되시는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만약에 형상이 아니고 하나님 비슷한 존재라면 항상 있을 필요가 없다. 사람은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형상으로 지어졌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병과 마찬가지로. 술 담으면 술 병, 물 담으면 물병이다. 같은 병인데 포도주를 담으면 포도주 병, 위스키를 담으면 위스키 병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정확하게 사람의 위치다. 절대로 하나님과 비슷한 것이 아니다. 비슷해서 잘하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존재가 아니다.

아무리 해도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 내용이 되실 때 그렇게 되는 것뿐이지 내가 어떻게 변해서, 내가 어떻게 발전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형상이 변질될 것이 아니겠는가? 아무리 사탄에게 팔려가서 사탄의 형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이다. 형상이기 때문이다. 만일 비슷하게 되어서 따라가는 존재라면 한번 가 버리면 안 된다.

합금을 해놓은 것도 다시 풀려면 어렵다.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다. 어제 한

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우리 교회에는 금속공학을 한 사람이 없어서 물어보지 못했다. 금도 용도에 따라서 합금을 한다. 순금을 쓸 데가 있고 합금을 쓸 데가 있기 때문에 합금을 한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좀 알아보려고 했는데 사람이 없어서 못 알아봤다. 내 생각에 합금을 해버리면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요즘은 기술이 좋으니까 모르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사람은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이 너무 큰 축복이다. 지금 사탄의 형상이 되어서 문제지만 언젠가는 돌아가면 다시 돌아갈 길만 있다면 다시 하나님 형상이 될 수 있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다. 그러므로 비어 있을수록 좋은 것이다.

불교에서도 이것을 찾고 있다. 성불했다는 것은 완전히 비었다는 뜻이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비워서 성불한 것이 오죽 하겠는가? 원래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기 위해서 만들어진 형상인데, 그 형상을 사람이 찾겠는가?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 수양한다는 것은 비슷해져 버린다. 하나님과 비슷해져 버린다.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과 비슷해질 수가 없다. 내용이 와야 된다. 변해서 하나님 처럼 되는 것이 아니고 내용이 들어와야 된다. 사람은 형상이고 빈 그릇이다. 흙과 마찬가지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산 혼)이 되니라.”**(창2:7) 산 혼은 우리의 생각과 정서와 의지와 이런 것이다. 사람이 바뀌지면 생각이 모든 것이 다 달라진다. 속의 내용이 달라지면 모든 것이 다 달라진다.

흙과 똑 같은 것이다. 흙이 작년에 콩을 심어서 콩밭이었다. 하지만 금년에 옥수수 심으면 옥수수 밭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 흙이 영원히 옥수수 밭이 아니다. 옥수수와 흙은 영원히 다르다. 가을에 주인이 추수해 가 버리고 나면 도로 빈 밭이다. 도로 흙이다. 그것이 사람이다. 이것에 대한 축복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아담은 이것이 불만스러워서 버리고 간 것이 아니겠는가? 내가 농사를 지어 놓았더니 다 가져가 버리고 내 것은 없는가? 이렇게 되면 농사를 못 짓는다. 주인이 필요해서 씨를 뿌렸으니까 주인이 가져가는 것이다.

현실의 법도 그렇다고 한다. 밭이 있는데 나무가 심겨진 밭을 그냥 사면 안 된다. 왜냐하면 밭은 내가 등기를 해서 팔 수가 있지만 나무까지는 팔 수가 없기 때문이다. 내가 밭을 산다고 샀는데 사과나무가 100주가 있었다. 사과나무는 누

구의 것인가? 그것은 그 주인의 것이다. 다시 사과나무 값을 다시 주어야 하는 것이다. 계약을 할 때 밭과 거기에 있는 작물을 한꺼번에 사야 하는 것이다. 경자유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 종자를 뿌린 자가 그 주인이다. 남의 밭이라도 내가 씨를 뿌리면 그것은 내 것이다. 밭은 내 것이 아니지만 수확물은 내 것이다. 희한한 법이 있다.

인생은 그렇게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씨를 뿌려서 그 열매를 거둬가도록 되어 있다. 그때 나는 그것을 감사해야 되는 것이다. 나 같은 흠에 이렇게 좋은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주인이 가지고 가는구나. 이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이고 감사다.

아담은 이것을 버리고 간 것이니까 저주밖에는 없다. 주인이 없으니까 잡초밖에는 날 것이 없다. 농사지을 사람이 없으니까 잡초밖에 나올 것이 없다. 가시밭이다.

이 놀라운 축복이 상실된 이후에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했어도 그것은 항상 불안정한 상태다. 온전치 못한 상태다. 아브라함이 가다 보면 엉뚱해져버리고 또 가다 보면 엉뚱해진다. 야곱도 마찬가지다. 가다 보면 또 엉뚱한 짓을 한다. 또 가다 보면 엉뚱한 짓을 한다. 이것을 반복하는 것이 연단이다. 연단을 해서 마지막에는 빈손이 된다. 아브라함은 100살이 되었을 때 빈손이 되었고, 야곱은 밧단아람에서 20년간 고생한 모든 것이 빈손이 되었다.

연단은 다른 것이 아니고 빈손이 되게 하는 것이다. 아무리 해도 내 것은 없구나. 내가 옥수수를 키웠든지 콩을 키웠든지 내 것이 아니로구나. 아무리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해도 내 것이 아니다. 내가 한 것은 내 것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것은 내 것이 아니다. 그것이 감사한 일이다.

내가 흠인데 흠대로 되었으면 뭐가 되었겠는가? 흠이 오래되어서 단단해지면 돌 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될 수 있겠는가? 자기들끼리 놓아두니까 뭐가 되겠는가? 벽돌을 구웠다고 한다. 흠으로 벽돌을 구워서 성을 쌓았다고 한다. 흠이 제대로 놓아두니까 뭐가 되었는가? 밭이 안 되고 벽돌이 되어 버렸다. 그러면 망하는 것이다. 완전히 멸망하는 것이다. 그것은 다시 쓸 수가 없다. 몇 만 년이 가야 흠이 되겠는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연단해서 만든다는 것은 결국 벽돌을 만드는 것이다. 유명한 사람을 보라. 도를 통한 사람을 보면 훌륭하다. 보통 사람들보다 비범한데 벽돌이다.

예수님의 마지막을 보니까 어떨까? 벽돌이 못 되었으니까 못 내려왔다. 벽돌이 되었으면 성을 쌓았을 것이 아닌가? 그런데 도로 흠이니까 성을 쌓을 수가 없다. 거기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다. 인생은 이것이로구나. 벽돌이 되는 것이 인생이 아니고 영원히 흠이구나. 물론 포도주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일을 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이다,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다.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보니까 아무 것도 아닌 것이다.

그 두 개가 조화가 안 되어서 삼위일체니 하고 있다. 형상이니까 당연하지 않은가? 하나님이 그 안에서 그렇게 쓰시면 그렇게 되는 것이다. 물론 포도주를 만들려고 하면 사람을 통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겠는가?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면 그렇게 될 수 있다. 모두 그렇게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나도 젊었을 때 그렇게 되고 싶었는데 안 되었다. 그래서 아주 실망을 했다. 그런데 사람마다 쓸 용도가 다르구나. 그런데 쓸 사람도 있고 이런데 쓸 사람도 있는 것이지 다 똑같이 쓰는 게 아니로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쓰든 쓰이기만 하면 그것이 행복이다. 내가 볼 때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은 없다. 내가 스스로 좋다 할 수도 없고, 내가 스스로 나쁘다 할 수도 없다. 내가 평가할 일이 아니다. 주인이 뿌린 씨가 그대로 자라면 잘된 것이다. 어느 때는 콩이 필요하고, 어느 때는 옥수수가 필요하다.

집사람은 밥에 팥을 넣어서 먹는 것을 좋아한다. 그런데 나는 앙꼬는 좋아하지만 밥에 팥을 넣는 것은 아주 싫어한다. 팥을 왜 자꾸 넣느냐고 하면 자기는 그게 좋다고 하니까 같이 먹으려면 고역이다. 그래서 지금은 밥을 두 가지로 한다. 자기 먹을 밥 따로 하고, 내가 먹을 밥을 따로 한다.

우리는 빈 그릇이다. 그러니까 여자다. 모두 하나님 앞에 오면 여성화 된다. 빈 그릇이니까.

오늘 아침에 송*소 형제에게 계란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암탉을 잡아보면

노란 알이 줄지어 나올 알이 순번대로 있다고 한다. 나는 껍데기가 살아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물어 보려고 한 것이다. 전부 노랗게 노른자뿐인데 어떻게 흰자가 나오고 껍데기 되어서 나오느냐고 물으니까 알집이 따로 있다고 한다. 하루 사이에 노른자가 순서대로 나오면서 하나씩 알집에 들어가면 흰자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흰자가 감싸고 껍데기가 입혀진다고 한다. 그러면 그 다음 날 계란이 되어 나오는 것이다. 나는 닭이 따로 자궁이 없는 줄로 알았는데, 따로 알집이 있다고 한다. 거기에 들어갔다와 나와야 달걀이 된다고 하니까 뱃속에 있는 것은 아직 알이 아니다. 신기하다.

서울에 가면 알탕 집이 있다. 암탉 속에서 나오는 내장을 전부 죽을 끓이는데, 옛날에 배고플 때는 굉장히 풍성하다. 제법 큰 사발에 주는데 계란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모른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이 그것 하나 먹으면 정말 좋은 영양 덩어리다. 닭 내장 탕이다. 요즘은 잘 먹는 시대가 되었으니까 콜레스테롤이 많다고 사람들이 아마 안 먹을 같다. 나는 어떻게 달걀로 나오는지가 궁금해서 물으니까 알집이 따로 있어서 알집에 들어갔다와 나와서 알이 된다고 한다.

생명은 너무나 신비하다. 그 알집은 항상 언제든지 빈 그릇이다. 그 빈 그릇을 통해서 알이 나온다. 우리 인생도 빈 그릇이다. 그런데 하나님 생명이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계란이 되어 나온다. 오리는 오리 알 나오고, 닭은 닭 알 나오고 다 다르게 나온다.

그런데 이것이 파괴되어 버렸다. 아담이 이것을 버리고 나갔기 때문에 이것이 파괴되어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따라다녀야 되는 것이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따라다닐 필요가 없었다. 자동적으로 움직여 갈 텐데 사람이 이것을 버려 버렸으니까 하나님이 붙어서 따라다녀야 된다.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 곁에 항상 따라다녀야 된다. 항상 하나님이 보혜사가 되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피곤하시다. 그런데 따라 다녀도 안 된다. 따라다녀도 순간순간 잘못돼 버린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실수를 했다. 야곱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는가. 여기서 새 연약이 필요하게 됐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 연약이 체결되었다. 내 법을 저희 생각에, 저희 마음에 두겠다. 그날에는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라 말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렘 31:31~34, 히8:10~11) 그날에는 어디로 갑니까? 물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아버지를 보여 주십시오. 그 날에는 부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완성된

날이다.

지금 제자들이 묻고 있다. 어디로 갑니까? 길을 모르겠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요14:8)고 하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요1:18)고 대답하신다. 새 연약이 완성될 때까지 이렇게 되는 것이다. 아무리 잘 따라 다녀도 그 수준에서 따라다니는 것이다. 구약시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충성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수준이 그 수준이다.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눅7:28)고 말씀하셨다. 그것은 자기 이전 세대 전체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눅7:28)는 것이다.

세종대왕이 우리가 지금 먹는 것을 먹었겠는가? 겨울에 딸기를 먹었겠는가? 나는 겨울에 딸기를 먹을 때마다 어느 임금이 이것을 먹었겠는가? 겨울에 딸기를 먹다니. 겨울에 수박을 어떻게 먹었겠는가? 동빙고 서빙고를 만들어서 겨울에 한강 얼음을 깨서 쌀겨에 넣어 땅속에 보관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름까지 남는 것을 가지고 화채도 만드는 것이다. 임금이 그것을 먹을 수 있었다. 아무리 그렇게 먹는다고 해도 살아있는 수박을 먹겠는가? 아무리 먹고 싶어도 못 먹는다. 그런데 우리는 돈만 있으면 사서 먹으면 된다.

마찬가지이다.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어린아이라도 이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셨다. 알고 보면 그것이 예수의 나라다. 내 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도 저보다 크다는 것이다. 알고 보면 놀라운 일이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 관계, 인간관계를 완전하게 회복하자면 그것이 온전하게 회복되려면 예수 안에 꼭 빠지는 것밖에 없다. 술독이 빠진 것처럼 꼭 빠져야 된다. 다른 것이 없다. 술독이 빠지면 저절로 24시간 항상 취해 있을 것이다.

십자가에 달려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는 우리가 꼭 빠질 수 있는 분이다. 우리가 꼭 빠진다. 그 안에 있으면 물이 모자랄 일이 없다. 바다 속에 있는 컵이 물이 모자랄 일이 있겠는가? 그래서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이제 생명의 보혜사가 된다. 전문가가 늘 말하는 그 보혜사보다 더 완전한 보혜

사다.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어떤 보혜사보다 더 완전한 보혜사인 것이다. 나와 그분이 한 생명이 되면, 한 생명 안에 있으면, 보혜사가 어디 따로 있겠는가? 율법이 없어졌다. 그러면 보혜사가 있어야 된다. 이 보혜사가 내 옆에 따라 다닌다고 되겠는가? 그러면 또 종교생활을 또 해야 한다. 그러나 예수가 내 보혜사가 되어버리면 된다.

지금 14장을 읽어보면 다시 예수님 자신이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요14:19) 세상은 모를 것이다. 보혜사가 와도 세상은 모르지만 너희는 알지 않느냐? 왜? 네가 나를 봤고 나를 알지 않느냐고 한다. 결국 그분이 그분이다. 발을 씻는 분도 그분, 거처를 구하러 가겠다고 한 분도 그분이다. 그런데 그 거처가 바로 그분이 거처다. 우리의 영원한 거처는 예수 안이다. ‘In Christ’가 우리의 영원한 거처이다. 그 거처 말고 또 다른 거처가 있으면 가짜다. 다른 것은 다 가짜다.

요한1서 5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참된 자를 알게 했다고 한다. 그 참된 자를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는 참 하나님이지요 영생이시라.”**(요일5:20) 그런데 왜 그 다음에 한 구절을 더 해놓았는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요일5:21)고 했다. 모든 사람이 다 너 자신을 버리라고 하는데 거기서 자기 자신을 지키라는 말이 나온다.

누구를 지키라는 것인가? 구속 받은 나를 지키라는 것이다.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지켜야 한다.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도로 말짱 도루묵으로 구약으로 돌아가 버린다. 그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 우상이 무엇인가? 가짜다. 가짜가 우상이다. 우리는 가짜인줄 모르고 섬기게 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가짜인줄 모르고 좋아서 섬기는 것이다. 종교라고 다를 것이 없다. 종교도 가짜를 도로 섬긴다. 가짜가 또 하는 것이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가? 우리가 참을 알려고 하는 것이다. 참되게 살려고, 참 사람이 되려고 믿는 것이다, 어느 교회를 가니까 강대상 뒤에 십자가 대신 큰 글자로 ‘참’이라고 써놓았다. 그분도 특이하다. 아레베아, 아레베아, 참이다. 우리는 지금 참을 찾아가는 것이다. 참이 무엇인가?

불교도 마찬가지로 알고 보면 참을 찾아가는 것이다. 무엇이 참인가? 불교 환경

이라는 것이 너무 복잡한 환경이다. 신이 수없이 많다. 돌에는 돌 신, 바다에는 바다 신, 오만 신이 다 있는 세계이다. 그것을 보고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허상이고 참을 찾자는 것이 불교이다. 그런데 우리는 참이 있어야 찾는다. 참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람에게 없는데 어디 가서 참을 찾겠는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까지 수양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참을 보았다. 내가 스님을 만나면 참을 봤냐고 물어보겠다. 못 봤으니까 그러고 앉아있는 것이다. 아직 덜 봤다고 할 것이다. 그것은 아무리 봐도 끝이 없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개념 자체가 없다. 그것을 지금 벗어나려고 불교에서는 애를 쓰는 것이다. 뭔가 깨우쳐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보다 낫다. 그런데 기독교는 무조건 믿어야하기 때문에 깨우치기는커녕 오히려 먹통이 되어 버린다. 뭘 좀 깨우치려는 사람도 들어가면 먹통 되어 버린다.

이*령씨가 기독교로 입문을 했는데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 오히려 먹통이 되어버렸다. 차라리 옛날에 무신론자일 때는 그래도 정직성이라도 있었는데, 기독교인이 되니까 자기도 모르는 소리를 계속 하고 있다. 옛날에는 다 자기가 아는 말을 했는데, 지금은 자기가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다.

앞으로 세계도 불교문화가 지배하면 싸움을 안 할 것 같다. 참을 어느 정도 알면서 싸움을 할 수 없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갈리진 것이 파키스탄은 모슬렘이고 인도는 힌두교이다. 사람이 섞여 살다보니까 파키스탄 내에 힌두교와 모슬렘이 섞여 분쟁이 자꾸 일어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회의를 해서 좋을 대로 하자고 했다. 힌두교 믿을 사람은 인도로 가고, 모슬렘을 믿을 사람은 파키스탄으로 가고 해서 3천만 명이 이동했다.

우리도 남북한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협상하면 간단하다. 북쪽으로 가고 싶은 사람은 북쪽으로 가고, 남쪽으로 오고 싶은 사람은 남쪽으로 오면 간단하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전쟁상태가 계속이다. 좀 우스운 이야기이지만 불교문화가 지배했더라면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다.

그 사람들을 보니 우습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하였다. 국경지대라는 것이 대문 하나가 있다. 1년에 한 번씩 개방을 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거기서 1년에 한 번씩 만나서 근위병 같은 군악대 사열하는 사람들이 둘이 양쪽에서 나와서 쇼를 하고 들어가고 문을 닫는다. 그렇게 평화로운 세상이 있다. 기독교가 들어간 데

마다 싸웠다. 안 싸우고는 안 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좋을 대로 가자는 것이다.

우리도 남북한이 그랬으면 좋겠다. 남북한이 서로 협상해서 서로 좋을 대로 하자. 괜히 싸우고 있을 일이 없으니까 공산주의 좋은 사람은 공산주의로 가고, 자본주의 좋은 사람은 자본주의로 오면 간단한 문제이다. 핵폭탄이고 말할 것도 없다.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예수 안으로' 밖에 없다. 길이 없다. 불교인보고 예수 안으로 들어오라면 들어오겠는가? 안 들어온다. 예수 안이라고 할 필요 없다. 인간의 진실 속으로, 본질 속으로 인도하면 된다. 우리는 지금 세상에 기독교를 전파하면 안 된다. 사람이 실 곳을 살 길을 전파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인간이 인간답게 되겠는가? 어떻게 인간이 회복되겠는가? 이것을 전파해야 되지 기독교라는 종교를 전파하면 안 된다.

목사님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목사가 뭘 해야 하는가? 하나님 뜻대로 해야 한다. 사람을 사람 되게 해야 된다. 사람을 사람 되게 하려면 예수 안, 십자가 안, 거기 있어야 된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십자가, 예수, 이런 말은 하지 않아도 된다. 그 실재를 알면 그 실재를 이야기하면 된다.

오래 수양했다고 겁낼 것이 하나도 없다. 봐야 되기 때문에 백날 수양해야 그것도 안 된다. 우리는 봤으니까 쉽지만 그 사람들은 안보고 찾는 것인데 얼마나 어렵겠는가? 장님이 얼마나 힘을 쓰고 애를 써서 뭘 찾으려고 하겠는가? 눈이 없으니까 못 찾는다. 눈이 있는 사람은 그냥 보면 되는 것이다.

광주에 가면 구동공원이라고 공원이 있다. 거기에 학교가 두 개 있는데 농아학교와 맹아학교가 마주 보고 있다. 맹아학교 아이들은 휴식시간이 되면 학교에서부터 나와서 계단을 내려가는 것이다. 계단이 많은데 거기까지 눈을 감고 와서 멈춰야 되는 아주 재미있는 게임을 한다. 자기들끼리 자기들 학교 교실 문에서 나와서 계단까지 가는 것은 운동장을 하나 건너서 딱 그 자리에 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떨어진다. 그런 게임을 한다. 눈이 있는 사람은 그런 게임을 할 필요 없다. 그냥 보고 계단까지 가면 된다.

우리는 참을 봤다. 참된 자를 알게 하신 분, 요한1서 5장 20절에 보면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요일5:20)이라고 했다. 참된 자를 알고 우리가 가야 된다. 예수 안에 종교가 있는가? 교파가 있는가? 아무것도 없다. 예수는 우리를 사람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단순히 기독교인이 되게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불교인이 되게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사람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놓았다. 이것이 구속이다.

나는 구속에 있어서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구속 주님이다. 나의 구속 주다. 나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면 뭐가 복음인가? 죄가 무엇인가? 사람이 사람 자리에 있지 않은 것이 죄다. 그러면 사람자리에 돌아오면 죄가 다 원인무효다. 무슨 죄를 따로 사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백날 죄 사람을 받아도 도로 마찬가지로 도로 마찬가지로 지이다. 사람이 사람 자리에 오지 않았는데 그 죄가 없어지겠는가?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서글프다.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자녀들에게 유언하듯이 그렇게 유언하고 있다. 그런데 14장에 가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보혜사를 보내겠다. 아버지께 내가 구해서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가 와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영원히 함께 하실 보혜사를 어디서 만나서 영원히 같이 살겠는가? 예수 안에 꼭 빠지는 것밖에 없다. 술독에 빠지면 술 사러 다닐 필요가 없다. 술병 들고 다닐 필요도 없다.

구속 주! 그 구속 주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 그리고 알고 보면 생명의 보혜사가 되시는 것이다. 완전한 보혜사가 되신 것이다. 그때는 보혜사로밖에 말하지 못했지만 지금 우리에게 와서 볼 때는 완전한 그분 자신이 보혜사다. 보혜사 다르고, 예수 다르겠는가? 모든 것이 하나다. 거처도 하나, 아버지도 하나, 보혜사도 하나, 모든 것이 하나다. 한분 안에 다 들어 있는 것이다. 형상으로서의 인간이 아니면 이것을 맛 볼 수 없다. 이것을 수용할 수 없으니까 안 되는 이론을 만든다.

옛날이야기인데, 내가 서울에 있을 때 여호와의 증인들이 교회로 찾아왔다. 삼위일체에 대해 이 사람들이 트집을 잡았다. 나는 그때 삼위일체를 말하지 않고 일체삼위를 말했다. 한 근원인데 세분이 나타난 것이 아니냐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뺨했다. 처음에는 두 사람이 와서 안 되겠다고 가더니 그 다음에 또 두 사람을

보냈다. 그래서 또 그 이야기를 하니까 안 되겠다고 갔다. 마지막에 나이가 들직한 사람들이 왔다. 아마 총 본부 사람인가본데 와서 한참 그런 이야기를 서로 했더니 그래도 기독교 안에 있을 수 있느냐, 그래도 교단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고 나에게 말했다. 문제가 왜 생기냐고 했다. 계속 오라고 했는데 다시는 오지 않는다.

그런데 일체삼위를 주장하는 데가 있다. 오순절 교회인데 연합 오순절 교회를 가 보니까 거기는 일체삼위론이다. 본질은 하나인데 세 가지 위가 있다는 것이다. 얼른 보면 양태론과 비슷하다. 양태론은 쉬운데 삼위일체를 하려니까 어렵다. 말하는 사람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모르고, 다 모르는 소리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했으니까 참 너무 한심하다. 자기도 모를 일을 하면서 사람을 죽일 일이 아니다. 그것도 불에 태워 죽였다. 장작더미에 얹혀놓고 거기에 불을 질렀다는 것이 얼마나 잔인한 짓인지 모른다.

영원한 해결이 없는 한, 주 예수 안에서 해결이 안 되는 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할 수밖에 없고 무자비한 짓을 할 수 밖에 없다. 무자비하려고 해서 그럴겠는가? 그 세계에 빠져버리면 무자비한 줄 모른다. 반드시 이것은 이래야 한다고 생각하지 인간이 이런 짓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한다. 유명한 사람들이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므로 무슨 수로 막겠는가? 못 막는다. 자기가 그것을 모른다. 알 수가 없다.

우리가 참된 자를 알았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른다. 언제가 참된 자가 우리 앞에 있다. 참된 자가 보이니까 우리가 빛나갈 수가 없다. 참된 자를 시인하면 된다. 아담은 그것을 시인하지 않았으니까 죄인이 된 것이다. 구주, 구속 주 예수 안에 꼭 빠지는 것 그것밖에는 길이 없다. 술 안 마셔도 항상 취해 있으니까 된다.

경대 근처 아마 술집인 것 같은데 간판이 ‘돼지가 술독이 빠진 날’이라고 재미있게 되어있다. 돼지고기에 막걸리가 있는 술파는 곳인 것 같다. 인생도 예수 십자가 안에 꼭 빠지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 여러 말 할 필요도 없다. 다 끝난다.

코로나와 싸우느라 애쓰는데 또 여기까지 와서 들어주시니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말을 할 데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다. 아무도 안 들어주면 얼마나 답답하겠는가? 이렇게 들어주러 오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가능

하면 교역자 모임도 지장 없을 정도로 해보라고 해서 해보았다. 밥도 마주보고 앉아서 먹으면 안 되고 거리를 두고 먹어야 하고 진풍경이 생겼다.